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자연을 노래하고 행복을 연주하다 '정은지' 작곡가

안녕하세요. 작곡하는 사람 정은지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인 앨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몇 곡을 쓰고 있고요, 이전에는 밴드 활동을 위주로 했는데 처음으로 개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창 작곡도 시도중에 있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시작했고, 작곡까지 하게 되었나요?

악기는 처음에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처음 접했고요, 곡은 어릴 때 쉬운 곡을 끄적끄적 거리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노숙인 자활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힘들 때 모티브 같은 게 계속 떠오르고 해서 작곡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 해서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완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완주에 내려온 지 3년 됐는데요, 이곳에서 중창단을 결성했어요. 2년 동안 '오손도손멜로디중창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노래를 가르치고 같이 공연 다니고, 시골의 어르신들 찾아뵙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 공간 오손도손 멜로디라는 음악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음악감상도 하고요, 같이 프로그램 모임,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음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가르치고, 어떤 친구는 2~3년 잘 배워서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활동 중인 칼라페스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어쿠스틱한 음악과 쉽게 들을 수 있는 라틴음악 위주로 곡 작업을 해서 들려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저도 여기 멀리 떨어져 와있고 보컬 노래하는 친구도 육아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멤버들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제 곡 작업을 하고 조만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완주 오기 이전의 작업과 완주 내려온 후를 비교하자면?

도시에서 할 때도 원래 자연적인 소재를 가져다가 곡에 쓰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더 그런 소재들이 풍부하고 만경강에 반짝거리는 물이 있잖아요. 윤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영감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 제목으로 쓰고 싶은 어떤 소재들이 더욱 풍부한 것 같아요

작업 중인 신곡이있는데 소개해주세요.

“월요일”

이번에는 직장인에 비애를 표현한 제목으로 월요일이라는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월요일에 항상 힘들잖아요. 그것을 한번 곡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라는 곡이 있어요. 좀 무기력한 감정을 가지고 음악으로 풀어봤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데 나를 조금 내버려둬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자장가”

불면증을 지닌 그대들에게 보내는 자장가를 하나 썼습니다. 편안하게 듣고 잠들기 좋은 곡입니다.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곡은 거의 나왔고요. 편곡 중에 있습니다. 음악가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조만간 레코딩 할 예정입니다.

오손도손멜로디로 오세요!

이곳에 오시면 제가 좋은 음악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나를 위한 이런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생각이나 느낌들을 말씀해주시면 당신만을 위한 곡을 만들어드리기도 합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곳에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음악을 즐기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금만 나가면 아름다운 산과 물, 들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음악을 만드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오손도손멜로디음악감상실 칼라페스타 추천곡

‘비타민’

다 명곡들이라 너무 좋지만 쉽게 들을 수 있고 저희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연인 간의 풋풋한 마음을 노래에 담은 곡으로 쉽게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곡입니다.

‘아카시아’

다음 곡으로는 아카시아가 있는데 이 곡은 제가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았을 때 멜로디가 떠올라서 그 모티브를 가져다가 썼고요. 아카시아는 삶을 노래하고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게 노래하는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오월’

저희 발라드곡이 한 곡 있습니다. 오월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오월에 빗대서 흘러가는 시간에대한 아쉬움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입니다.